

南北 평화시대, 외국인 관광확대 적기



독자 투고
정 명 진 코스모진 대표

27년만에 극적으로 성사된 남북한 정상회담은 한반도에 큰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 불과 몇 년 전만해도 전쟁의 공포로 휩싸였던 한반도는 이제 남, 북 정상이 두 손을 마주 잡고 분단경계선을 넘나드는 역사적인 장면을 연출하며 극적인 반전 드라마를 선사하고 있다.

심지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는 핑크빛 메시지를 전하기도 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임기초기 북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던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이런 화끈한 말이 나올 것이라고 감히 누가 예상할 수 있었을까. 글로벌 미디어들도 이 놀랍고 감동적인 스토리를 농칠세라 앞다투어 남북한의 화해 무드와 경제 협력 기사를 톱뉴스로 실어나르고 있어,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런 극적인 관계 변화는 국내 각 산업 분야에도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특히, 외국인 관광 시장은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수혜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인바운드 관광 업계는 싸늘한 남북 관계로 좀처럼 침체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리고 2018년 현재, 우리는 분단 65년 만에 불어온 평화의 훈풍을 타고 새로운 기회 속에 놓여 있다.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는 지금, 외국인 관광 시장은 외연을 넓힐 수 있는 최적기가 아닐 수 없다. 그동안 국내 관광 산업이 한류, K-패션, K-POP 등 문화 콘텐츠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었다면, 이제는 여기에 ‘평화’라는 키워드를 더해 새로운 관광 콘텐츠 만들어 낼 찬스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기회도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잡히지 않는 법이다. 우리도 어렵사리 찾아온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지금이라도 국내 관광 산업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고치고 외국인들이 오고 싶게 만드는 국가 브랜딩을 개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와 전문가들이 앞장서 신규 시장 개척 및 고품격 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해 차별되는 관광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 전세계 유일하게 남아있는 DMZ, JSA 등 비무장 지대를 분단의 아픔이 아닌 평화를 상징하는 관광지로 새롭게 재포지셔닝하고, 특별한 관광 요소를 만들어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안보관광은 우리나라만이 가진 특수한 영역으로 자리매김 해왔고, 지금도 방한 외국인들에게 인기 1순위로 꼽힐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안보관광은 비단 판

문점 일대와 같은 곳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북한 신의주와 서울을 잇는 평화 노선으로 새로운 가치를 조망 받고 있는 경의선숲길, 지하병커의 옛 모습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미술관의 역할을 함께 하도록 인기를 끌고 있는 여의도 벚꽃 등 도심 곳곳의 장소들도 새로운 스토리를 담아내며 안보 관광지 중 하나로 몸값을 높이고 있다. 실제, 최근에는 경의선숲길에서는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시점에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도보다리 회담이 재현되기도 해 국내외인들의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 뿐만 아니다. 외국인 관광 시장 확대를 이끌기 위해서는 서울권 외에도, 대한민국의 전통과 멋을 느낄 수 있는 지자체 중심의 관광지도 외국인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국내 관광을 체험하기 위해 밀려드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비한 충분한 기반 시설 확충도 기본이다.

모처럼만의 남북간 화해 무드는 한국이 글로벌 관광대국으로 다시금 발돋움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을 안겨줬다. 이 기회를 잡을 것인가, 놓칠 것인가, 이 결정은 우리 손에 달려 있다. 모쪼록 대한민국도 독일의 베를린 장벽처럼 역사가 살아 숨쉬는 평화의 대명사이자 안보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KEB하나銀, 금융공모전 3년 연속 ‘금융감독원장상’ KEB하나은행은 금융감독원 주관 ‘제13회 금융공모전’에서 금융감독원장상인 ‘금융교육 우수프로그램 우수상’을 3년 연속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KEB하나은행은 ‘하나드림캠프’를 통해 지방 곳곳의 초등학생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직업체험 교육을 제공하고 미래 진로 설계에 도움을 주는 등의 다양한 노력을 높이 평가 받아 수상했다. /KEB하나은행



롯데제과, 경북 봉화에 ‘ 스위트홈 ’ 6호점 건립 롯데제과는 지난달 31일 지역아동센터 ‘롯데제과 스위트홈(Sweet Home)’ 6호점을 건립했다고 1일 밝혔다. 스위트홈 6호점은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에 위치, 총부지 5106㎡(1544평)에 건물 198㎡(60평), 외부공간 330㎡(100평) 규모로 건립됐다. /롯데제과



SPC그룹, 인천공항공 등과 ‘장애일 일자리 지원’ 맞손 SPC그룹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푸르메재단과 ‘장애일 일자리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천국제공항 내에서 식품용 컨테이너 선사업무를 펼치고 있는 SPC그룹이 인천공항공사와 함께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SPC그룹 파리카라상 권인태 대표이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정일영 사장, 푸르메재단 강지원 이사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SPC그룹



이랜드월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수상 이랜드월드가 지난달 31일, 서울시 여의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진행된 ‘2018년 동반성장 Festival’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오른쪽부터 남승일 이랜드월드 R&D 선임연구소 연구소장과 임형섭(취서경에이티 대표). /이랜드월드

하현희 부회장, 강원도 산골마을 이장님 됐다

LG유플러스
운학1리에 ICT 기반시설 제공

하현희 LG유플러스 부회장이 강원도 산골 마을 이장으로 위촉됐다.

LG유플러스는 1일 강원 영월군 무릉도원면 운학1리에서 하 부회장의 명예 이장 위촉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하 부회장과 최명서 영월군수, 허식 농협중앙회 부회장, 안중선 이장과 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하 부회장은 운학1리에 ICT 기반 시설



하현희 부회장(가운데)이 운학1리에서 마을 창고 벽화그리기 봉사활동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을 제공하면서 명예 이장으로 추대됐다. 작년 10월 농협중앙회와 함께 운학1리를 ICT 융복합사업 시범마을 1호로 선정하

고, U+마을방송과 방범용 CCTV, 마을회관에는 U+ TV 서비스도 설치했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LG복지재단
화염속 3살 아이 구한
흥천소방대원 6명 등
‘LG의인상’ 수여

LG복지재단은 최근 화재로 인한 격렬한 열기 속에서 3살 아이를 구한 김인수(55) 소방위 등 소방대원 6명과 뇌출혈로 쓰러진 남성을 구한 황현희(17), 민세은(13) 양에게 ‘LG의인상’을 수여한다고 1일 밝혔다.

강원도 흥천소방서 김인수 소방위를



흥천소방서 소방대원들. /LG복지재단

비슷한 소방대원 6명은 지난달 28일 흥천읍의 한 빌라 4층에서 불이 난 건물 속에서 어린아이를 구했다. 이 과정에서 소방대원들의 보호장비인 안전모가 열기로 녹아 내렸고, 화상을 입기도 했다.

또, 황현희 양과 민세은 양은 지난달

24일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동에서 시내 버스를 타고 가던 중 한 남성이 길에서의 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버스에서 내려 출혈이 심한 남성을 주변에 있던 시민과 함께 지혈하는 등 응급조치를 했다.

/구서윤기자 yuni2514@

인사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장급 △행정정책과장 김현숙
- ◆통일부 ◇임용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 교류부장 비서관 황준호 ◇전보 △통일교육원 교육협력부장 고위공무원단 나급 박형일
- ◆고려대 △경영대학장 겸 경영전문대학원장 김재욱 △보건과학대학장 직무대행 고영학 △기획예산처장 이영재 △감사실장 직무대행 신호영 △디자인혁신센터장 권민성

- ◆인천대학교 ◇2급 승진 △고덕봉 △조천순 ◇3급 승진 △김종호 △이광희 △황선용 ◇3급 전보 △경영대학 최형우 △교수학습지원팀장 최재웅 △인천대학발전기금 김형기 △글로벌대학원 I NU어학센터 김광수
- ◆과학기술연대학원대학교(UST) △대외협력처장 주현규
- ◆한경닷컴 △뉴스국장 박수진

- ▲김두근(전 코리아타임스 논설위원)씨 별세, 종친 씨 부친상, 구성회(가야메디칼센터원장)·강병화(주빌리치과원장) 씨 장인상 = 10월 31일 오후 1시,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1월 3일 오전 8시 30분, 02-2258-5940
- ▲장석환 씨 별세, 장제원(익주무역 대표)씨 부친상, 김진숙 씨 시부상, 장민성(SBS 기자)·장민홍(루닛 이사)씨 조부상, 박세희(문화일보 기자)씨 시조부상 = 1일 0시 20분, 전북 익산 원광대학병원장례식장 3층 306호, 발인 3일 오전 10시, 063-859-2310

동양생명 부사장에 ABL생명 출신 김수봉



동양생명은 오는 16일자로 김수봉 전 ABL생명 부사장(사진)을 부사장으로 정식 선임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김수봉 부사장은 보험개발원장, ABL생명 부사장 등을 역임했다.

동양생명은 “신임 김 부사장은 오랜 기간 금융감독 기관에 종사하며 보험 경영 관리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며 “한·중 양국의 문화와 전력을 잘 융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희주 기자 hj89@

이재환 삼익전자공업 대표 10월의 자랑스러운 中企人



전광판을 제조하는 삼익전자공업(주) 이재환 대표(사진)가 ‘2018년 10월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으로 선정됐다.

이재환대표는 1969년 삼익전자공업을 창업해 약 50년 간 기업을 경영하면서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한일월드컵,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 등 국내에서 개최된 굵직한 국제 스포츠 행사에 전광판을 제작·설치해온 노하우를 갖추고 있다.

/김승호 기자